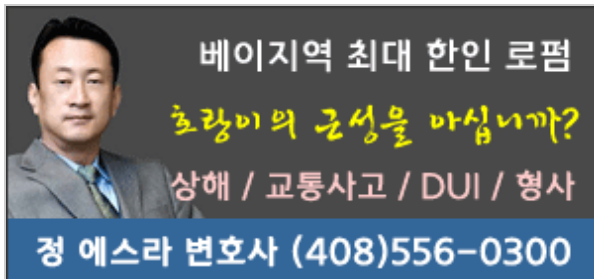


“차세대 정체성 뿌리내린다”... 다솜한국학교, 새학기 힘찬 출발

by KDT posted SEP 10, 2026



산호세한인장로교회서 개강식... 학생·교사 대상 총영사상 등 주요 표창 수여
프리스쿨반 신설로 조기 한국어 교육 확대... 맞춤형 커리큘럼 선보여
2004년 개교 이래 22년간 역사·문화 교육 매진... 뿌리 교육 산실 자리매김

실리콘밸리 지역 한인 차세대들의 뿌리 교육을 선도해 온 다솜한국학교가 2026-2027학년도 새 학기를 열고 본격적인 교육 일정에 돌입했다.

다솜한국학교는 지난 9월 5일 산호세한인장로교회 본당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 학년도 개강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 5일 다솜한국학교 개강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 다솜한국학교>

권미정 교무교사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국기에 대한 경례, 미국 국가 및 애국가 제창, 산호세한인장로교회 박석현 담임목사의 축복 기도로 이어졌다.

전남진 이사장의 격려사와 최미영 교장의 인사말에 이어 한 해 동안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들과 헌신적인 교사를 격려하는 시상식이 거행됐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상은 박준우·안아라 학생이,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차세대 리더상 부문 금상에 박준우·안아라·윤지윤·나예준 학생이, 은상에 장시온·김재용 학생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제14회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에서는 김이룬 학생이 평화상을 수상했으며, 교직원 부문에서는 권미정 교무교사가 독도재단 이사장 표창장을 받았다.



<수상 학생들과 교사 등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다솜한국학교>

이어 새 학년도를 이끌어갈 학교 조직과 각 학급 담임교사 및 보조교사진이 소개됐다.

특히 다솜한국학교는 이번 학년도부터 TK(Transitional Kindergarten·유치원 준비반) 과정을 신설해 한국어 및 전통문화 조기 교육 대상을 한층 넓혔다.

개강식 직후 열린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신설된 TK반 운영 방침과 연령별 맞춤형 교육 과정의 변화 방향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나눴다. 신입 학부모들은 지인 추천과 온라인 검색을 통해 학교의 우수한 교육 환경을 접하고 등록하게 됐다고 전했다.

학교 측은 급변하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구성과 학부모들의 교육 수요에 발맞춰 커리큘럼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2004년 개교한 다솜한국학교는 20여 년간 실리콘밸리 지역 주말한국학교로서 차세대 동포 자녀들에게 한글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며, 건강한 한인 2·3세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온안 기자>